



관광과 여가로 국민행복을 이끈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잘사니즘 위원회
산하 관광여가행복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 5월 27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4쪽(붙임 1쪽 포함)

배포처: 정란수(010-4631-6532)

문의처 : 공동위원장

나효우(010-5162-1414) / 민경석(010-9766-1111) / 정란수(010-4631-6532)

더불어민주당 잘사니즘 위원회 「관광여가행복위원회」

한중 유학생 및 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국유학교우총연합회 간담회 개최

-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잘사니즘 위원회 산하 관광여가행복위원회, 중국유학교우총연합회 간담회 개최
- 한중 유학생 및 기업 교류 활성화를 통한 관광 발전 및 문화교류 증진 방안, 중국 관광객 유치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잘사니즘 위원회(위원장: 유동수, 어기구) 산하 관광여가행복위원회(공동위원장: 나효우, 민경석, 정란수)는 5월 26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사)한국중국유학교우총연합회(70만명)와 함께 「한-중 유학생 및 기업 교류 활성화를 통한 관광 발전과 국민 행복 증진」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관광여가행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나효우, 민경석, 정란수 위원장과 잘사니즘 위원회 유동수 위원장을 비롯해 (사)한국중국유학교우총연합회 류재운 회장 등 연합회 대표단 1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내용

간담회에서는 '한중 유학생 및 기업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과 국민 행복 증진'이라는 주제로 류재운 회장이 현재 한중 관광교류 현황과 발전 방안을 발제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중국유학교우총연합회는 ▲ 중국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무비자 입국 검토 및 차기정부 출범과 함께 양국 간 공무교류 활성화 도모, ▲ 중국 유학생 학부모 무비자 정책 검토, ▲ 한중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 추진으로 포럼, 교육, 학술교류 등을 통한 체계적인 문화교류 프로그램 구축, 양국 간 상호 이해 증진과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 기반 조성 등을 제안했다.

잘사니즘과의 연결점 강조

류재운 회장은 "한중 유학생 교류는 단순한 교육 교류를 넘어 양국 국민들의 여가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통로"라며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핵심 가치로 하는 잘사니즘 위원회와 관광여가행복위원회의 목표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진짜 대한민국' 비전은 경제적 풍요와 함께 문화적 교류를 통한 국민 행복 증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목표와 완전히 부합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7.2만 명의 중국 유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교육, 문화, 관광 활동은 바로 잘사니즘이 추구하는 '잘 사는 삶'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나효우, 민경석, 정란수 관광여가행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한중 양국의 유학생 교류는 단순한 인적 교류를 넘어 양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는 관광과 여가를 통한 국민 행복 실현이라는 우리 위원회의 핵심 가치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관광객 송출국 중 하나이며, 양국 간 교육 교류를 바탕으로 한 관광 활성화는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오늘 제안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동수 잘사니즘 위원회 위원장은 "한중 유학생 교류를 통한 관광 활성화는 양국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정책"이라며 "국민들의 여가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경제적 효과도 창출하는 이런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잘사니즘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적 효과 기대

연합회 측은 "현재 한국에 유학 중인 중국 학생 7.2만 명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교우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연간 수십만 명의 중국 관광객 유치 가능하다"며 "이는 관광업계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교육을 매개로 한 관광은 일반 관광에 비해 체류 기간이 길고 지출 규모도 크며, 재방문율도 높아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한국중국유학교우총연합회는 '한중 유학생 교류 활성화를 통한 관광 발전과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잘사니즘 위원회 유동수 위원장에게 전달하며, 차기 정부가 한중 관계 발전과 상생 협력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붙임 : 간담회 사진 1부.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관광여가행복위원회 정책 및 언론배포담당 정란수(☎ 010-4631-65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요 관련 사진 >

